

EU 방위산업전략 (EDIS) 분석보고서

<24.04.19, 한-EU연구협력센터 / 자료 제공: KRIT 유럽사무소(24.03.25)>

□ 개 요

EU 집행위(EC)에서 발표한 “새로운 EU 방위산업전략(EDIS)”에 대한 분석보고서임

□ 배경지식

○ 안보환경의 변화

- (2000년대)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위기
- (2010년대) 중동 정세 불안정에 따른 난민 증가/영국 EU 탈퇴 /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

* 브렉시트에 따른 안보공백 심화(EU 핵잠 전력의 50%, 공중 조기경보기 44%, 전자 정보수집기 38% 등 첨단 전력의 절반 가까운 비중 차지, 유럽 최대 국방비 지출국)
 ⇨ 기존 “대서양주의” 에서 “유럽주의”로 패러다임 변경

○ EU 차원의 독자 안보역량 강화 추진

- EU 국방 이니셔티브 구성요소

- ① 국방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한 ‘유럽방위기금(EDF)’ 설립(17.6.)
 * PESCO 지원 / '21-'27 총 예산 79억 5300만 유로 규모
- ②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‘상설안보방위협력체(PESCO)’ 출범(17.12.)
 * EU 회원국 간 공동 방위역량 강화, 공동 프로젝트 투자, 안보 및 방위산업 분야 협력
 ⇨ 유럽판 “자주국방”
 * 27개 회원국 中 26개국(몰타 제외) 참여 중 / 68개 프로젝트 진행 중('23 기준)
- ③ 국방환경 분석을 통한 협력 기회 제공 ‘연례방위력 조정 평가 (CARD)’ (17 최초 발간)

-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: “전략적 나침반” (22.3.)

- ①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 대응(Act) : 신속대응군 창설(2025년)
- ② 시민의 안전보장(Secure) : 군사적+비군사적 수단(하이브리드)
- ③ 관련기술 투자(Invest) : 방위산업과 기술기반 강화
- ④ 동반자 관계구축(Partner) : 전략적 파트너/우호국가 관계 강화

○ EU 회원국 동향 : 프랑스/독일의 역할 강화 “유럽주의”

- 전략적 나침반 ⇨ 독일 주도/프랑스 협력
 - * (독일) 전통적으로 군사력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, 美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따른 대서양동맹 균열에 따라 EU 의장국 당시(2020년) 유럽안보 강화 전략 마련 주도
 - * (프랑스) 초반에는 반대했으나, 차기 의장국(2022년 상반기) 때 해당 전략을 채택하면 양국 간 시너지 효과 발생을 기대하여 적극 협조
- 프랑스-독일 주도의 방산협력 강화
 - * 독일 주도의 주력지상전투체계(MGCS), 프랑스 주도의 미래전투항공체계(FCAT)
- 프랑스-독일 협력 강화
 - * 現 EU 집행위원장(獨 Ursula von der Leyen) 선출 시 프랑스의 적극 지원
 - * EU 국방산업, 우주 등을 총괄하는 “내부시장” 집행위원회에 佛 출신 인사 임명

[요약]

- ▶ EU는 대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 안보역량 강화를 추진
- ▶ 이를 위해 국방 이니셔티브(EDF, PESCO, CARD)를 구성하고, 대응전략(전략적 나침반)을 수립
- ▶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방위산업과 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
- ▶ 프랑스-독일 주도의 방위산업 협력이 공고해 지고 있음

□ EU 방위산업 전략(European Defense Industry Strategy)

① 수립배경

- “전략적 나침반” 목표달성을 위해 ‘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(EDTIB, European Defense Technology Industry Base)’ 강화의 필요성 대두

[현 실태]

- ▶ 러-우 전쟁 개전부터 ‘23.6월까지 EU 회원국의 국방조달 78%를 EU 역외에서 수입, 그 중 미국 발은 63% 차지
- ▶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(EDTIB)은 중견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(SME)을 갖춘 주 계약업체(Prime Contractor)의 조합으로 구성
 - 대형 체계업체는 소수 국가에 위치
 - 중요 플랫폼 제조, 장비공급, 탄약과 같은 소모품 생산 및 하위업체는 EU전역에 분포
 - 연 매출 추정규모 700억 유로, 2021년 수출규모 280억 유로, 고용규모 50만명
- ▶ EDTIB 능력 약화 추세 발생 中 : ❶ 국가별 분산된 수요 ❷ 규모의 경제 실현 저해 ❸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 증가

- 러-우 전쟁에 따른 한시적 EDTIB 강화 전략마련(2023년)
 - ① 탄약생산지원에 관한 규정(ASAP)
 - 연간 100만발의 포탄 생산(개전이래 50% 생산능력 확대)
 - 2024년 140만발/2025년 200만발 이상의 생산 능력 확보
 - ② 유럽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수단 확립에 관한 규정(EDIRPA)
 - 공동조달을 통한 역내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수단 확립
- 한시적 조치(ASAP, EDIRPA)에서 벗어나 방위기술산업기반(EDTIB)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위해,
 - ① EU 방위산업 전략(EDIS)
 - ② EU 방위산업 프로그램 규정(EDIP) 을 발표('24.3.5.)

② 주요내용

- 최종목표(2030년)
 - ① 장비의 최소 40%를 공동조달로 확보(현재 18%)
 - ② 회원국 국방조달 예산 50%를 역내에서 구입(35년 60%)
 - ③ EU 방산시장의 역내 거래 비중을 35%로 확대
- 공동조달 촉진
 - 방위산업준비 위원회(European Defense Industry Readiness Board)
 - * 공동 조달계획 및 수요공급 기반의 조달 효율화, 생산역량 평가, 전략적 지침제안
 - * 기존 능력개발계획(CDP), CARD, PESCO를 기반으로 식별
 - 방위산업 그룹(European Defense Industry Group)
 - * 위원회와 산업계 간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립
 -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과 상호교환성(Interchangeability) 지원
 - * NATO STANAG과 이를 보완하는 유럽 국방표준 참조 시스템(EDSTAR, European Defense STAndard Reference system) 사용 장려
 - * 교차인증 활동 지원, 비상 상황 하 국가 인증의 상호인정(EDIP 조항 명시)
 - EU 군비 프로그램 구조(SEAP, Structure for European Armament Programme)
 - * 3개국 이상이 공동 개발, 조달, 사용 및 유지관리(총수명 주기)에 대한 군비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법적틀을 제공 ⇨ PESCO를 보완
 - * 공동조달 규칙, SEAP 공동 소유 시 VAT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

○ 가용성 확보

- 긴급 요구에 대한 신속대응과 지원

- * EDPI를 통한 자금지원(공작기계, 인건비), 생산기술 현대화 등 가용성 향상
- * 민수산업 생산시설의 국방목적 동원(예시 우-러 전쟁 간 민수용 드론의 개조 활용)

√ 유럽 드론 전략 2.0 발표('22.11.29.)
 √ Horizon Europe 및 EDF 펀딩의 프로그램 지원
 + 새로운 드론기술에 대한 유럽투자은행(EBI) 자금 대출 결함
 √ 민간-국방 드론 테스트센터를 통한 민군 교류 추진

- 방산공급망 가속화를 위한 전환 기금(FAST, Fund to Accelerate Defense Supply Chain Transformation) 창설

- * 방산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조 활동 계획을 보유한 중소/중견기업에 대한 부채 및 자기자본 조달을 촉진

○ 국방과학기술 혁신

- 국방 적용 가능 기술 보유(Dual-use) 중소기업(SMEs) 지원 강화로 투자자와 최종사용자(군)와의 연결 촉진

- * (기존) EDF 내 EU 국방혁신계획(EUDIS)에 따른 투자자-파트너-최종사용자 매치 메이킹을 위한 20억 유로의 예산
- * (향후) EDA 산하 EU 국방혁신허브(HEDI)와 EUDIS 간 협력을 통해 400개의 혁신 스타트업, 중소기업 지원
 - 우 키에프 內 EU 혁신사무소 설립을 통한 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 지원

- EDF 프로젝트의 국방산업화 촉진

- * R&D 이후 산업화 촉진을 위한 EDIRPA(공동조달) 활용 촉진 ⇨ 프로토타입 생산 및 상업화 시 EDIP에 따른 보조금 제공

○ 안보적 관점에서의 공급망 보장

- 직면 가능한 두 가지 위기에 대한 “위원회” 차원의 대응

- * ① 민간, 이중용도, 원자재 부족에 따른 공급망 위기 시 국방 분야 공급 우선순위 보장
- * ② EU 또는 인근지역의 안보위기에 따른 군용품의 공급 위기 해결 조치

- 전자부품 및 광범위 사용 원자재의 전략적 비축 활성화 지원

- * 비축을 위한 대량구매 시 자금지원

- 국방기술에 대한 기술의존도 탈피를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(EU Observatory of Critical Technologies) 식별

- * 종속기술에 대한 빠른 식별, 공급망 모니터링(우선적으로 전기, 전자 및 전자기계 (EES) 반도체 기반 부품 및 무인자율 시스템에 대한 기술분석 시작)

○ EDTIB를 위한 자금지원

- EDPI 제안 규정 내 15억 유로의 예산을 포함
 - * 우크라이나 군수품 지원을 위한 러시아 동결자금 금융수익 활용검토
 - 現 벨기에 소재 증권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(Euroclear) 1,900억 유로 러시아 자산을 보유 중이며, '24년 3월 기준 52억 유로 수익 발생 추정
- 現 이중용도 사용 기술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유럽투자은행(EIB) 규정을 방산 분야로 확대 협의(전 회원국 동의 필요)
 - * EU-방위산업 간 지속 가능한 금융체계 정립
- EU 내 다양한 기술 산업 개발 자금의 국방산업 활용 추진
 - * ERDF, ESF+(기술분야), Cohesion Fund(교통분야), InvestEU 등

○ 파트너십 강화

-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발전
 - * (현재) 전시 DTIB 전환 모델 ⇨ (향후) EDTIB 테스트베드
 - * 우크라이나의 공동조달참여, 방산기업 협력 지원
 - * 표준 및 전사 교훈에 대한 정보교환, 방산협력 포럼개최(2024년)
- 북대서양 조약기구(NATO)
 - * 상호운용성, 표준화 교차지원 등 정보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
 - * 조달(NSPA↔EDIRPA), 혁신기술(DIANA↔HEDI) 간 협력 강화
- 전략적 파트너, 국제기구, 제3국과의 상호이익 파트너십 강화
 - * 새로운 공급망 형성 또는 공급망의 안전한 보호를 통한 EDTIB 강화

[EDIS 요약]

- ▶ (수립배경) 국방이니셔티브 ⇨ 전략적 나침반 ⇨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(EDTIB) 연계
 - 방위산업 전략(EDIS)* + 방위산업 프로그램 규정(EDIP)** 발표
 - * non-binding : 법적 구속력 없음 / ** Regulation : 예산이 수반되어 법적 구속력
- ▶ (최종목표) 2030년 까지,
 - ① 공동조달 40% ② 조달예산 50% 역내구입 ③ 역내 거래비중 35%
- ▶ (세부내용)
 - ① 공동조달 : 방위산업준비위원회/방위산업그룹/SEAP 설립, 상호운용성 강화
 - ② 가용성 확보 : FAST 기금 창설, 민수 생산 시설의 국방동원
 - ③ 과학기술 혁신 : Dual-use, SMEs 지원강화 등 개발 ⇨ 산업화 연계 강화
 - ④ 공급망 보장 : 국방우선순위 공급망, 비축자금 지원, 종속기술 식별
 - ⑤ 자금지원 : EDPI 예산 확보, 민간투자 기금의 국방활용 확대
 - ⑥ 파트너십 강화 : 우크라이나, NATO, 제3국 상호이익 파트너십 강화